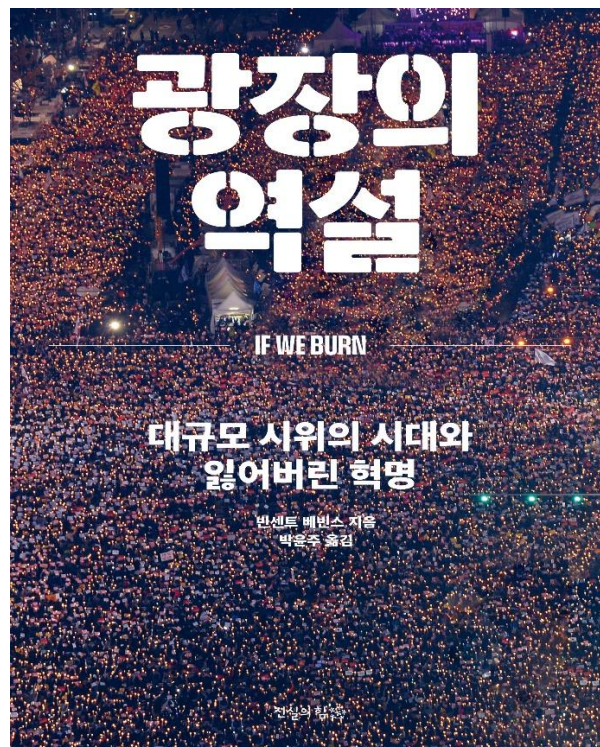


진실의힘 NEWSLETTER

진실의힘 

[리뷰_ 광장의 역설]



우리의 광장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재정 (광장을 잇는 윤퇴청 대표/불평등 묻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123일 동안 한국 사회는 윤석열 탄핵을 두고 극렬히 대립했다. 빈센트 베빈스의 『광장의 역설』(진실의힘)은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한국만의 특수한 풍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책의 원제는 “If we burn”. 책은 우리가 ‘타오른 이후의 이야기’와 ‘타오른 이후의 질문과 그 해답’을 담고 있다. 전자는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 양상인 대규모 시위의 기록이고, 후자는 그토록 뜨겁게 타올랐는데도 사회변혁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그 끝에 저자가 도달한 해답, ‘대표성’에 대한 사유다. 책은 독자를 브라질, 칠레, 이집트, 미국, 홍콩 등 뜨겁고 치열했던 정치적 시공간으로 데려간다. 거대한 시위의 주체들이 무엇을 했고, 무슨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세밀히 따라간다. 그 과정은 ‘나였다면 어떻게?’, ‘한국은 왜?’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 세계 시위를 통해 한국의 광장을 곱씹기

책 속 끝없는 시위의 서사는 역자도 후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세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게’ 한다. “우리도 그랬는데” 하는 공감에서 출발해, 한국의 광장을 세계의 맥락 속에 위치 짓는 경험은 사회적으로 흩어진 광장을 다시 곱씹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예를 들어, 아랍의 봄 시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광장의 비공식 대변인’들이 있었다는 대목을 읽을 때는, 계엄 이후 트위터에서 광장의 소식을 퍼뜨리던 ‘에스텔 뉴스계정’과 ‘향연’을 떠올렸다. 홍콩 청년들이 집회 후 쓰레기를 직접 줍는 장면에선 여의도 집회 후 시민들과 함께 청소하던 기억이 겹쳐 보였다. 브라질 무상대중교통운동이 SNS 이벤트 공지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은, 윤퇴청이 트위터에 ‘내란동조 국민의힘 장례식’을 제안해 평일 낮 200여 명이 모였던 날을 떠올리게 했다. 누가,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여러 국가의 시위대가 벌인 논쟁은, ‘윤석열 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자 회의에서 흐르는 긴장감을 연상케 했다.

윤석열 탄핵 광장을 주의 깊게 지켜본 시민이라면, 책이 다루는 신자유주의, 반정치, 소셜네트워크, 시민과 정치권력 간의 긴장, 수평주의와 대표성 같은 키워드를 통해 한국의 현재를 세계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분석해보게 될 것이다.

광장 이후, 대표성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책은 2010년대 대규모 시위를 취재하며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대표성’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대부분의 대규모 시위가 탈권위주의와 수평적 문화를 내세우며 대표성을 거부했지만, 이는 결국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했듯,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자들은 대변될 것이다”라는 경고다.

그렇다면 ‘대표성’은 무엇일까. 저자는 2019년 칠레의 ‘사회폭발(Estallido Social)’을 대표성의 모범사례로 든다. 당시 하원의원이던 학생운동가 출신 가브리엘 보리치는 시위 후 2021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물론 광장의 시민들은 그가 권위적으로 굴며 거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그의 집권 그 자체가 광장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대표성이란 정치적 권력의 획득, 즉 선출직 당선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모호하다. 광장을 상징하는 인물이 당선되면 대표성이 완성되는 걸까? 그 상징성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부여하는가? 하나의 정당이나 조직으로 결집해야만 성공인가, 혹은 권력을 압박할 협상력이 있으면 되는가? 질문이 꼬리를 문다. 저자의 논리로 본다면,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한국의 광장은 분명 승리다. 탄핵 이후 탄핵에 우호적인 정당 후보가 집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마음 편히 승리라고 규정하기에는 여전히 씁쓸

한 뒷맛이 남는다.

한국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탄핵 논의만 세 번째, 그리고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은 실제로 파면됐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국민적 합의가 비교적 높았지만, 이번엔 반대세력의 결집으로 정치적 대치가 극단화됐다. 그 사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국제적 맥락과 반공냉전 체제에 기반한 한국의 극우 정치가 맞물려 한국형 극우는 조직적으로 강화되었고, 국민의 힘은 탄핵 이후에도 반성 없이 ‘윤어게인’을 외치며 정치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과 소수자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광장의 시민들이 집권 중심의 ‘대표성’에만 목멜 순 없는 노릇이다. 내란청산과 개헌은 여전히 불안하며,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했던 광장의 요구와 달리 ‘차별금지 법제화’는 요원해 보인다. 여당이 시민사회와 약속한 ‘독립적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나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도 아직 미지수다. 탄핵 광장의 주역이었던 장애인·성소수자·여성·빈민 등의 광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그들을 대변할 정치적 공간은 여전히 협소하다. 이들에게 스스로 조직해 대표성을 획득하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광장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시민들이 사회운동과 밀도 높게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 광장은 이전과 달랐다. 운동권을 거부하던 대학생·청년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했고, 깃발을 직접 만들어 대오들과 나란히 섰으며, 가로막힌 시위대의 길을 열어준 민주노총에 환대를 보냈다. 농민들의 트랙터를 지키기 위해 남태령의 밤을 지새운 이들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대표성’만큼이나 의미있는 가능성 아닐까. 광장 안에서 타인과 연대하며 거리의 정치를 만들어낸 무수한 움직임과 역동을 해석하고 기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운동의 동력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을 때 금세 소모된다는 저자의 우려에 충분히 동의한다. 나 역시 최근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에 모였던 수백만 시민들의 의견을 한두 명의 정치적 대표가 대변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적합하지도 않다. 저자가 우수사례로 언급한 칠레 역시 보리치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이 무산되며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광장이 흩어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운동을 이어갈 동력일지 모른다. 여전히 목표와 전략, 전술을 고민하며 광장을 이어가려는 이들이 있다. 올해 9월 열린 기후정의행진은 ‘광장을 잇는 기후정의행진’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그 속에서 광장의 경험과 시민들의 참여가 다시 빛났다. 당장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광장은 분명한 경험과 사람을 남긴다. 이를 동력 삼아 더 넓고 단단한 연대를 상상하고 조직하는 것,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되 분명한 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기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무기가 아닐까. 앞으로 우리의 광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각자가 품은 질문의 답을 <『광장의 역설』>과 함께 찾아보길 제안한다.

[기록]

응원봉 불빛이 모이다

허란(사진가)

허란 사진 작가는 누구나 지나쳤을 지 모르는 풍경과 사물들, 혹은 누구나 보았을 풍경이지만 다르게 다가오는 이미지들로 포착하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개인전 <사라진, 살아진>, <꺾인 풍경>이 있으며, <사건이 발생했다>, <세대전승>,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사진1: 2025.03.15.15차 범시민대행진

진실의 힘 뉴스레터에 실을 원고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쌍용차 해고노동자 투쟁, 세월호 참사, 제주 4.3사건, 고공 농성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내외신에서 5~6년간 사진기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1월부터 비상행동의 집회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12.3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족했고, 4월 4일 윤석열 파면 직후인 4월 8일에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024년 11월~2025년 5월의 약 6개월 동안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를 기록했고, 진실의 힘 123내란기록팀의 인터뷰를 2025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5개월간 촬영했습니다. 어쩌면 2025년의 상반기는 저에게서 사라진 듯 까마득한 기억입니다.



사진2: 2025.03.22. 16차 범시민대행

그해 겨울은 춥기도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 집회 촬영을 언제나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날씨를 확인한 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기온이 영하 몇 도인지에 따라서 준비물들이 달라졌습니다. 3~4시간을 밖에서 돌아다니며 촬영하다 보면 손,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발바닥에 핫팩을 붙이고 양손에 핫팩을 꼭 쥐었습니다. 종아리와 볼이 얼얼할 만큼 추운 날, 영하의 온도에 칼바람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많은 깃발들과 응원봉 그리고 시민들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본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시작할 때, 기억에 남는 두 번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이 2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는 곳에서 행진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전 차선이 행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높은 트럭 위에서 바라보는 나도 감동스러웠는데, 그보다 더 높은 저 위에서 고진수 지부장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물결은 더욱더 감동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행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고진수 힘내라'라는 외침으로 행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외로운 고공농성 싸움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세종호텔 고진수의 고공농성은 (현재 10월 21일 기준) 252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스러운 순간은 한남동으로 향하는 행진 대열이 한남동에 들어서면서 기존에 집회 중 인 인원과 합쳐지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잘 왔다고 응원하고,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응원봉을 흔들며 서로를 챙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깃발에 적고, 자신들이 지닌 반 짝이는 무언가들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밝힐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수백 수천 수만의 불빛들이 되어 어두운 밤을 밝게 밝히며 아름다운 것들이 되는 광경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진실의 힘 123내란 기록팀에서 인터뷰 사진을 2025년 2월부터 찍었는데, 장장 5개월 동안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300명을 기록하자고 계획했는데, 그중 제가 촬영한 사람이 97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 그동안의 촬영분을 살펴보면 그때 마다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12월 3일 국회로 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에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터뷰이들 각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엑셀로 정리한 목록들을 종이에 인쇄해서 직접 가져오셨고, 어떤 분은 블로그에 그날의 기억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분은 3-4장의 사진을 찍었고, 어떤 분은 영상과 사진이 핸드폰 앨범 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가까워 마실 물을 준비했고, 어떤 분은 국회 안의 상황을 전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12월의 어느 날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몇 장의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회원 소개_박미현 회원]

타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

인생의 어느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 어떤 일일까요? 우연한 계기에 행정사가 돼 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박미현 회원님을 만나 행정사와 파산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행정사로 일하는 박미현입니다. 주로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한 업무를 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요. 행정사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파산 관련 업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사란 말이 낯선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약간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관련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기관과 일해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한다든가, 당사자를 대신해 법인을 신청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죠. 법원 업무도 소송은 못 하지만, 행정기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행정사가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초등학교 경계성아동¹을 지도하는 ‘울키즈 스터디’ 사업에 참여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 하게 됐죠.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인데, 한국에 귀국한 조카가 비자 문제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행정사가 뭔지 알게 됐고,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사로 일하고 있어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자문위원 중 유일한 행정사시라고요.

네,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사가 진출해 있는 영역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자문위원 중 행정사는 아쉽게도 저 혼자입니다. 아직 행정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지 않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각종 인증 관련 업무, 단체 설립 업무, 인허가 업무 등 행정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모두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받고 해주었어요. 행정사는 어쨌든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비용을 받죠. 비전문가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문제예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비전문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곳에서 미리 상담받고 와서 부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행정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이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로 일하면서 만난 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상담사례인데요. 우물가라는 임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직접

¹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동을 경계성아동이라 일컫는다. 의료계에서는 경계선지능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기초학습이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지능지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 ‘지능’이라는 말을 쓰면 해당 아동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경계성아동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

뵙고 싶어서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만났어요. 다둥이 엄마들의 모임인데, 소외계층의 집을 청소하고, 도시락을 싸서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세요.

특히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이 할법한 일을 다 하고 계신 게 눈에 띄었어요. 문에 교육도 직접 하고, 취미나 자격증 관련한 교육도 하고. 동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면 이분들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언을 드렸죠.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 엄마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거의 4년을 이어오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었을까’ 싶어서 기억에 남아요.

파산 관련 업무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분과 같은 사무실을 쓰다가 파산 관련 사실조사 업무를 하게 됐어요. 행정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사실조사니까, 파산관재인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법원에서 파산선고(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상태임을 선고하는 일)를 하면 파산관재인이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요.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주로 봐요. 저는 관재인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리하며 도와줍니다. 면책 불허가사유는 가령 돈을 자식에게 빼돌린다는가, 특정 채권자 빚만 갚는다는가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면책을 받을 수 없어요. 사실조사를 위해 채무자마다 최소 10년 치 자료를 봐요. 채무자의 10년 인생과 함께 파산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겪은 수많은 사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생각이 많아져요.

그 과정에서 만난 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면책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장애나 질병이 없는 한 면책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젊고 장애나 질병도 없지만 재량면책 사유가 충분한 것 같다고 변호사님께 말씀드린,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25살 된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인데, 보육원에서 이 아이가 정신 이상이라며 정신병원에

감금해서 중학생 시절을 다 병원에서 보내요.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기고 행복해했는데, 두 달 만에 지적장애라며 아이를 특수반으로 옮겼고 친구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시설 내 아동학대의 책임도 이 아이에게 씌워서 소년보호시설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시설에 있던 친구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는데, 업주 등이 이 아이 명의로 대출받은 뒤 도망쳐서 결국 아이가 파산신청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카페나 편의점 같은 데서 일을 안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라고. 그러니까 ‘편의점을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디서 일했니?’ 하고 물으니 ‘김밥집, 빵집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왜 그만두고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라고 하니깐 그때야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못 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지만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한글만 간신히 어깨너머로 배우고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할 생각 자체를 못했고, 김밥집, 빵집에서도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다가 결국 못 하고 유흥업소까지 간 거예요.

이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산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경계선지능아동을 가르쳐봤으니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빠르진 않아도 기본 개념과 원리를 차근차근 가르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언젠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선생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르쳐줬을까요? 왜 저한테 이걸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라고. 다행히 지금은 더하기랑 빼기를 너무 잘하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려면 또 영어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웃음) 영어도 가르치고 있어요.

40년 묵은 빚을 가지고 오신 분도 기억에 남아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모 그룹 부사장까지 지낸 아주 잘나가시던 분인데, 30대 중반에 회사가 망한 뒤 건강이 나빠져서 몇 년간 투병 생활하고 지금은 야간 경비 같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여쭙보니 ‘주변에서 다 파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빚이니 어떻게든 제가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가족에게 고통을 줬는데 부인과 자녀에게 빚까지 안겨줄 수는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온 날,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오늘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한참 있다가 펄펄 우시는 거예요, 70 넘은 노인이. 당신 인

생이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다 스쳐 지나갔대요. 그리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하는 말 같았어요. ‘최소한 자식과 부인에게 빛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빛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셨는데도 ‘진작 할걸’ 이라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분도 정말 기억에 남아요.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진실의 힘을 후원하셨는데, 지켜보신 진실의 힘은 어떤 곳인가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을 잘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요. 국가폭력 피해자, 특히 조작간첩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인생을 보듬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 말고도 세월호 참사의 전모를 기록했고, 또 지금은 내란사태 이후의 촛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심도 있는 인문학 서적이 사라져가는 세태에 깊이 있는 책을 꾸준히 내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해요. 진실의 힘이 하는 활동을 보면, 내면이 점점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폭도 조금씩 넓히고 있고요.

회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빛을 네가 감당하지 않아도 다시 경제적으로 갱생할 기회가 있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진실의 힘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제도적 폭력의 피해자가 된 분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분들이 다시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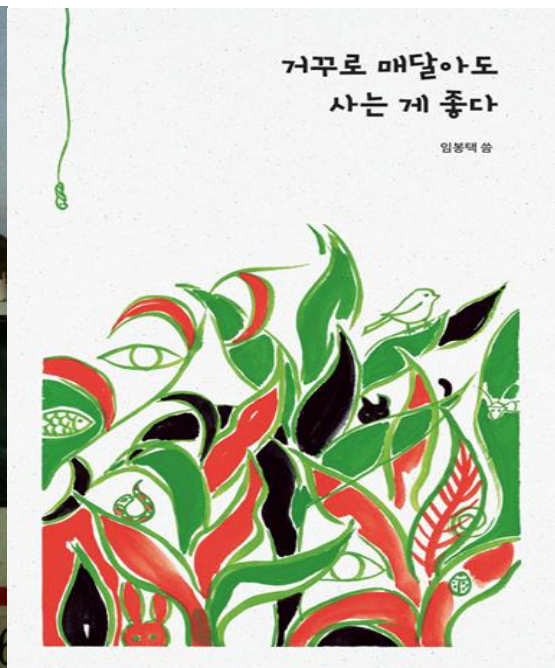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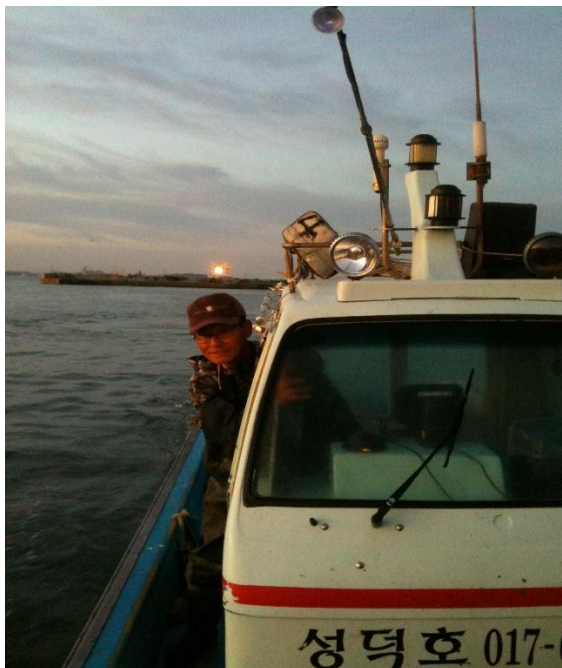
[연재]임봉택 선생의 옛 이야기②

임봉택 선생은 1947년 군산 앞 바다 개야도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 때 아버지를 따라 고기잡이 배를 타며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1972년 1월 친구 박춘환, 유명록 선생과 군산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2010년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재단법인 진실의 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옥살이는 선생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결코 잊지 못할 고문의 고통, 그 기억들을 종이 위에 풀어내기 시작했다. 달력 뒷면에, 버려진 공책에 글을 썼다. 처음에는 끔찍한 경험이 쏟아졌지만, 서서히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 하루하루가 신비스럽던 딸의 육아일기, 삶의 가치와 기쁨을 일깨운 독서 일기로 이어졌다. 거칠고 투박한 어부의 손으로 써 내려간 글은 『거꾸로 매달아도 사는 게 좋다』(진실의 힘, 2023)로 출판됐다. 이 책은 죽음보다 강한 인간의 삶을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펼쳐 놓는다. 책에 실린 글 가운데 5편을 골라 뉴스레터에 연재한다.

아버지의 눈물

임봉택



나는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 때부터 어부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 집이 가난도 했지만, 형님은 손가락이 붙어있는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아버지 혼자서는 어장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하게 된 것이다.

설 명절이 지나가기 바쁘게 소라 껍질을 사다가 주꾸미 잡이 어장을 만들어 바다에 넣기 시작한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나일론 줄이 어디 있습니까? 탈곡하고 난 벼짚으로 새끼를 꼬아 그 줄에 소라껍질을 달아 주꾸미를 잡을 때였다. 그런데 벼짚으로 만든 새끼줄은 일년만 쓰면 삭아서 다음 해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벼짚을 사다가 겨울 내내 온 식구들이 새끼줄 꼬는 일에 매달려야 했다. 그 새끼줄에 소라껍질을 매달아 바다에 펼쳐 놓으면 주꾸미는 소라껍질을 제 집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람만 세게 불지 않으면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주꾸미를 잡아 상고선(장사할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에 팔았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동력선이 어디 있습니까? 노를 저어 다니는 전마선을 타고 캄캄한 새벽 바다를 아버지와 함께 노를 저어 나가려면, 손발이 너무 시려워 젖던 노를 놓고,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고 앉아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고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자식의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와 같은 심정이셨겠지요.

그때는 나일론 장갑이나 양말 같은 것이 없고 면장갑이나 면양말뿐이었는데 그것마저 구하기가 어려워 떨어지면 기워 신고, 또 떨어지면 또 기워 신다가, 떨어지면 장갑 대신 떨어진 양말을 손에 끼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했다.

3, 4년 동안 그렇게 주꾸미 배를 타며 바다 생활을 하다가 17살 먹던 해부터 상고선을 타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부터 사촌 매부의 형이 운영하는 7톤 정도되는 발동선(동력선) 만풍호를 타고 인천이나 광천, 강경 같은 포구로 새우젓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6월에 새우를 잡아 저장해 놓았다가 젓갈로 파는 것이다. 배에서 내가 하는 일은 화장(밥해주는 선원)이었다. 누구나 큰 배를 타기 시작하면 선원들 밥해주는 화장부터 시작합니다. 4, 5명의 선원들을 위해 하루 삼시 세끼를 밥해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 평도 못되는 좁은 공간에서

장작나무에 불을 피워 밥을 해야 하는데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에는 불이 잘 피워지지 않아 연기 때문에 눈물에 콧물까지 많이도 흘렸다. 배가 너무 흔들려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이지만 선원들의 끼니는 꼭 해줘야 했다. 그럴 땐 어쩌다 보면 (바람 불어 파도 치면) 밥이 설익어서 설컹거리면 밥이 설었다고 욕하는 놈, 쥐어박는 놈,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 선원들은 작업이 끝나면 육지에 내려가 구경도 다니고 낮잠도 자고 하는데, 나는 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배에서 꼼짝 못하고 배를 지키면서 식사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러한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열 여덟 살 먹던 해 겨울에 부산으로 내려가 어선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실어 나르는 운반선을 타기 시작했다. (계속)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신경 강영숙 강용주 강은영 강은옥 강창욱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영
곽경란 구민채 구종우 구혜임 권대우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남섭
김동민 김민희 김병선 김상범 김상훈 김선정 김성숙 김성일 김소연 김수지 김순영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심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재명 김정애 김정애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종익
김종환 김주영 김준성 김지순 김지은 김진용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현정 김환균
김효정 김효진 나백주 나원돈 노복미 류혜정 명지원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경미 박계용 박근홍
박노성 박미옥 박보경 박보경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수희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철홍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배진환 서나경 서민아 서수정 서예령
설정희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기 신동호 신상철 신진숙
심은정 심찬섭 안경호 안명옥 양경희 양남훈 염은진 오용관 오현석 우한철 위정미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양희 윤택진 윤혜영 이근행 이미정 이선화 이성엽 이옥 이용현 이윤정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진 이채훈 이춘희 이하늬 이한솔 이현주 이해선 이해영 이해온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전원현 정길동 정길화 정남림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민지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희 정의로 정재홍 정종호 정주환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은희 조일준 조정애 주은진 채수미 채옥희 채환규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정식 최진민 최진숙 하인숙 하지훈 한재희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홍지연 홍진아 황순규 황해지니 법무법인[유] 지평